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배필이 되는 남원의 사랑과 추어탕

권중걸
한국식품연구원 성과확산홍보실

가을 첫 머리에 봇짐을 꾸려 남원으로 향한다. 들녘은 황금물결로 넘실거리고 아침저녁 쌀쌀한 기운은 무언가 그리움으로 남는다. 무엇이 그리울까? 여름 내내 더위에 지친 몸에 보양이 그리운가 아니면 정든 님이 그리운가. 아마도 실속 있는 사람은 둘 다 그립다 말하리라.

지금은 교통편이 좋아져서 4시간 반 만에 철마(鐵馬: 승용차)를 몰아 당도할 수 있는 거리지만 옛날로 생각하자면 말을 타고 가더라도 7일은 족히 걸렸을 먼 길이다. 그러니 춘향을 살리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남원으로 가야했던 이몽룡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 게다가 춘향가 중 어사의 행보 대목을 보면 한양을 출발해 과천, 수원, 천안, 여산, 삼례, 박석고개를 거쳐야 겨우 남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니 첩첩산중 남원 땅에 가기란 꽤나 힘들었을 것이다.

험준한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남원은 지리산 굽이굽이 골짜기마다 흘러내리는 맑은 물과 산자락을 이용해 만든 다락(계단식) 논이 많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논물 속에서 잘 자라 통통하게 살이 오른 가을 미꾸라지는 농사일로 지친 농부들의 영양보충과 더불어 사랑의 묘약으로 서민들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 아니나 다를까 벼 베기를 끝내고 물을 뺀 논 웅덩이에는 씨알이 굵은 미꾸라지들이 마치 힘자랑이라도 하듯 서로 파고들며 뒤엉켜 있다.

가을에 먹는 미꾸라지 탕을 우리 조상님들은 특별히 '추어탕(鰍魚湯)'이라 이름 붙여 가을철 대표 보양식으로 먹어 왔다. 미꾸라지는 물 맑고 기름진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그야말로 자연이 준 선물로 추운 겨울철을 대비한 보양과 긴긴밤 사랑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안성

맞춤의 음식이다. 남원의 추어탕은 비린내가 없고 담백한 맛과 함께 구수하게 씹히는 시래기가 일품이다. 게다가 맛도 좋아서 남녀노소 모두 즐겨 먹는 영양식이다. 힘을 많이 써야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사랑의 묘약으로, 여성에게는 미용식으로, 나이가 지긋한 이들에게는 보양식으로, 어린이들에게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머리를 총명하게 하는 건강식으로 매우 인기가 높은 음식이다.

남원의 추어탕은 그냥 미꾸라지가 아닌 우리나라 토종 미꾸라지를 사용해 만든다. 미꾸라지를 하루에 3번씩 물을 갈아주며 1주일간 해금(解噤)시키는데 완전히 이물질을 뱉어낸 미꾸라지를 삶아내고 곱게 갈은 후 바람에 잘 말린 무청 시래기를 푹 삶아 들깨가루로 육수를 만들고 햇된장을 풀어 5시간을 가마솥에서 끓여 우려낸 그야말로 몸에 좋은 보양식이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된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고춧가루와 마늘 다진 것, 대파 등의 양념을 넣어 끓이면 완성되는데 먹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부추, 산초, 후추 등을 곁들이면 입맛에 꼭 맞는 맛있는 추어탕을 먹을 수 있다. 남원의 추어탕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것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최고의 식품이며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탄복할 가을철 보양식이다.

소설 속 허구의 등장무대가 현실 속에 엄연히 존재하여 더더욱 사실적인 느낌을 주는 곳이 남원이라는 동네다. 특히 옛 고전소설에서부터 동편제 판소리에 이르기까지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 현대인의 사랑 역시 지나침이 없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사흘간의 사랑을 노래한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 산자와 죽은 자와의 사랑을 노래한 신재효의 '변강쇠가', 죽음을 무릅쓴 사랑의 이야기 '춘향전', 없는 사람들의 사랑이야기 '흥부전' 등 남원은 온통 우리의 귀에 익숙한 사랑이야기뿐이다. 물론 이러한 사랑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산의 깊은 지리적인 여건과 함께 느긋하고 낭만적인 기질을 가진 인성들이 속세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병풍처럼 둘러쳐진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이기 때문이다.

춘향가의 한 대목인 사랑가를 보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이이 내 사랑이로다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긋 웃어라 잇속을 보자 아마도 내 사랑아" 하여 농 짙은 사랑 이야기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춘향이를 떠올리면 바로 함께 떠오르는 곳이 광한루이다. 황희 정승이 '광통루'라는 작은 누각을 지어 산수를 즐기던 곳으로, 전라도 관찰사 정인지가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달나라 항아의 궁전을 아예 이곳으로 옮겨 '광한청허부(廣寒淸虛府)'라 한 후 광한루라 이름 지은 곳

이다. 남원부사 장의국이 지리산 맑은 물을 끌어들여 연못을 만들고 견우, 직녀의 이별의 정한을 나타내는 오작교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정원이 가진 최고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김시습의 금오신화 중 '만복사저포기'의 시를 보면 "만복사에 향 올리고 돌아오던 길이던가. 가만히 저포를 던지니 그 소원을 누가 맺어 주었나. 꽃 피는 봄날 가을 달밤에 그지없는 이 원한을 임이 주신 한잔 술로 저근덧 녹여 보세. 이 밤이 어인 밤이기에 이처럼 고운 선녀를 만났던가. 꽃 같은 얼굴은 어이 그리도 고운지 붉은 입술은 앵두 같아라.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배필이 되어 꽃 피고 달 밝은 아래에서 끊임없이 노닐려오."라는 구절이 있다. 또한 만복사저포기에서 흥부전, 춘향가, 변강쇠전으로 이어지는 남원의 천년사랑 놀음은 남원의 추어탕이 그 뒷받침을 해준 음식으로 자랑하여도 무방하다. 특히 남원을 무대로 전해지는 여성의 적극적인 사랑 표현은 남존여비 사상에 젖어있는 조선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물론 남원에 이처럼 사랑 놀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위험이 닥치면 지방민이 똘똘 뭉쳐 나라를 지키려 했던 나라사랑이 여행자의 가슴을 여미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만인의 의로운 무덤 만인의총(萬人義塚)이 교룡산성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만인의총은 정유재란(1597년)때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민·관·군 1만 여명의 충혼을 모신 곳으로 충열사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순국한 50여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임진왜란(1592년)때 호남을 범하지 못하여 승전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왜적은 5만 6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 왔는데, 이에 맞서 싸우다 중과부적으로 패하였지만 끝내 항복하지 않고 함께 장렬히 전사한 군인과 주민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만여 명의 군사와 백성들이 끝까지 항거하여 죽음으로 맞이한 교룡산성은 그래서 남원인의 나라사랑을 여김 없이 보여주는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다.

찬바람에 옆구리가 시려 오는 이 계절에 남원의 추어탕 한 그릇으로 연인들끼리 다정히 정분을 나눠보자. 천년 사랑이 흐르는 만복사지에서 당시에 양생이 저포를 두어 내기에 이긴 고려시대 부처님에게 못다 이룬 사랑이 있거든 내기라도 걸어 사랑을 쟁취하여 보자. 그리고 이몽룡이 춘향을 업고 놀던 광한루 오작교에서 연인에게 '사랑한다' 고백이라도 해보자

교룡산성을 걸으면서는 의로운 이의 뜨거운 나라사랑을 내 가슴에 담아 찬 서리 내리는 가을과 겨울을 따뜻하게 사랑의 불로 지펴보자.

만남으로 인한 소통의 공간 남원…. 이승과 저승이 소통하고, 못난 사람과 잘난 사람이 소통하고,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소통하며 민초들의 나라사랑이 하늘과 소통하는 남원…. 남원은 우리의 얼속에 사랑이라는 한맛을 우려내는 곳이다.

〔사진제공 | 권중걸〕